



항적스님, 선목스님, 수불스님



최병문, 송문호, 최우환

### 이들이 있어 불교신문 오늘이 있다

#### 공로패 및 감사패 수상자들

‘불교신문 지령 3000호 발행 기념법회’에서는 신문사 발전에 기여한 전 사장 스님들과 창간독자 등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 시상식이 있었다. 불교신문 제41대 사장 항적스님, 제42대 사장 선목스님, 제43대 사장 수불스님과 최병문 전 부산지사장이 공로패를, 송문호 창간독자, 최우환 공플란트치과 원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항적스님은 2003년 11월부터 4년간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언론을 통한 불법홍포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스님은 2004년 지령 2000호 발행 기념법회를 여법하게 마무리 하는 한편, 2003년부터 주2회 전환된 불교신문 안착화에 기여했다.

선목스님은 2008년 11월부터 2년간 사장으로 재임했다. 스님은 특히 매달 전국의 사찰을 돌며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108산사순례기도회의 신도 대중을 통해 독자 배가운동을 전개해 성과를 거뒀다. 또 2010년 창간 50주년 행사를 여법하게 치른 공적을 남겼다.

#### 지령 2000호...창간 50주년 행사 '공로' 2대 걸친 지사장...3대 이은 독자까지

수불스님은 중단신도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불교신문 독자 확대에 큰 성과를 냈다. 포교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을 펼쳐 문서포교에 큰 공로를 세웠다. 스님은 2010년 11월부터 2년 동안 사장으로 재임했다.

최병문 전 부산지사장은 선전에 이어 40년 가까이 지사장으로 활동하며 지역불교 활성화와 영향력 확대에 기여했다. 부산영남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최 씨는 부산 불교계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최 씨는 법회나 불교행사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구독을 권유하는 등 불교신문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 씨는 지난 3월 40여년의 활동을 회향했다.

이날 창간 독자로 불교신문과 평생을 함께 해온 송문호 씨도 감사패를 받았다. 송 씨는 선대에 이어 후손까지 3대를 이어 불교신문을 애독하고 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모친의 영향으로 대학생 시절 불교신문을 처음 만난 송 씨는 창간 이후 꾸준히 신문을 보고 있다. 송 씨의 모친 김계순 여사도 본지 지령 300호 인터뷰를 통해 '초보자들이 불교에 입문할 수 있도록 좋은 길잡이가 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할 만큼 애독자였다. 최우환 공플란트치과 원장은 치과 의사로 있으면서 불교신문과 연계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과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했다. 최 원장은 2009년 치과를 개원한 이후 매년 연동회 불교문화마당에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치과진료소'를 운영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신심 있는 불자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불교신문 지령 3000호 발행 기념법회가 열린 지난 7일 불교계뿐 아니라 정·관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해 불교신문 발전을 축원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 “부처님 뜻 널리 퍼 중생 구제하길”

#### 각계 축하메시지

지난 7일 불교신문 지령 3000호 발행 기념법회가 열린 A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은 500여명의 축하객들로 가득 찼다. 원로 의원과 교구본사 주지, 중앙총회 의원 스님과 정관계 인사들은 물론 불교신문의 독자들이 대거 참석해 종교계 신문 가운데 처음으로 지령 3000호를 맞은 불교신문의 발전을 기원하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냈다.

특히 불교신문 전신인 대한불교에서 활동했던 원로의원 인환스님은 “불교신문 더욱 힘내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후배들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50년 전인 1964년 법정스님과 함께 논설위원과 편집위원으로 스카우트 돼 매주 월요일 오전이면 총무원 총무부장 송산스님, 박경훈 편집국장, 서경수 교수와 만나 점심공양을 할 때까지 편집회의를 했었다”고 회상한 스님은 “그 후 50년이 지나 불교신문은 주2회 발행을 하고 발행부수도 늘어나는 등 장족의 발전을 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장대교망 녹인천어(張大教網瀧人天魚), 큰 그물을 퍼 모든 바다의 고기를 건지듯,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퍼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게 불교신문이 해야 할 일”이라며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말했다.

원로의원 종하스님도 “조계종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불교신문이 창간 54년, 지령 3000호를 달성해 종단의 한 구성원으로 자긍심을 느낀다”며 “정도로서 사부대중의



기념법회에는 각계각층의 축하메시지가 이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진제 종정여하, 총무원장 지승스님, 불교신문 사장 성직스님, 박근해 대통령.

지 않아 신도들과 거리가 멀다”며 “불교신문이 알찬 내용으로 가교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선우옹녀 씨는 “불교신문을 보며 큰 스님 법문을 들을 때마다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며 “앞으로 5000호, 1만호를 발행해 세세상생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해 축하인사를 했다. 독실한 불자로 잘 알려진 조윤선 여성가족부장은 “4월7일 독립신문 창간을 기념해 제정된 신문의 날인 오늘, 불교신문 지령 3000호 발간 행사에 참석해 영광”이라고 인사하며 “다리를 놓듯 한 호 한 호 신문을 발간했던 것처럼 앞으로 독자들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인을 대표해 정몽준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축하를 건넸다. 정몽준 의원은 불교신문 발행인인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스님과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하며 지령 3000호를 진심으로 축하했다. 김진표 의원은 “고은 시인, 법정스님 등이 활동했던 불교신문의 위상과 역할을 새삼 절감했다”며 “54년이란 긴 시간 동안 불교를 알려온 불교신문에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eonakdo@bulgyo.com

“부처님 말씀 담은 경전 불교신문 더욱 힘내세요 알찬 내용으로 가교 역할을...”

갈채를 받는 신문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덕담했다.

호계원장 일면스님은 해인사 성철스님 회상에서 공부하던 시절 해우소에 휴지 대신 불교신문을 갖다 뒀다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담은 경전을 휴지로 쓴다”고 불호령을 들었던 추억을 전하며 웃었다. 일면스님은 “저도 지금껏 불교신문을 보면서 종단이나 사찰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일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태백산맥) <아리랑> 저자인 소설가 조정래 선생과 배우 선우옹녀 씨가 동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해 관심을 모았다. 조정래 작가는 “불교는 경전 한글화가 잘 이뤄지

# 불교신문 지령 3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부처님진신사리 봉안도량 **영장산 원적정사**

주지 주혜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 7-1  
☎ 031)705-3662 Fax 031-704-8272

대한불교조계종 **황련사**

신도대중일동

부산 수영구 광안4동 1296-29  
☎ 051)756-5794